의존 라이브러리 관리

앞서 beanie와 pytest 같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했다. 하지만 의존성 관리자 역할을 하는 requirements.txt 파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추가하도록 하자. requirements.txt 파일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파이썬에서는 pip freeze 명령을 사용해 개발 환경에 사용된 패키지들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설치된 모든 패키지의 목록뿐만 아니라 해당 패키지와 연관된 서브 패키지의 목록도 볼 수 있다. 다행히 requirements.txt 파일을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주요 패키지만 나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존성 관리가 더 쉽다.

requirements.txt 파일을 수정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모든 의존 라이브러리를 출력 해보자.

```
(venv)$ pip freeze
anyio==3.5.0
asgi-lifespan==1.0.1
asgiref==3.5.0
attrs==21.4.0
bcrypt==3.2.2
cffi==1.15.0
python-multipart==0.0.5
...
```

많은 의존 라이브러리가 표시되지만 몇몇 라이브러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requirements.txt 파일을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변경해서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로만 채운다.

```
fastapi==0.78.0
bcrypt==3.2.2
beanie==1.11.1
email-validator==1.2.1
httpx==0.22.0
Jinja2==3.0.3
motor==2.5.1
passlib==1.7.4
pytest==7.1.2
python-multipart==.0.0.5
```